

잊지 말자, 24년 8월 15일

의정단상



이명노
광주시의원

8월 15일을 여는 자정 KBS에는 일본의 국가 기미가요가 방송에 나온다. 일제강점기에 조선인에게 제창이 강요된 노래이자 일왕의 권위를 상징하는 노래이기도 하다. 광복절이면 인산인해인 독립기념관은 모처럼 한산하다. 1945년 광복을 부정하고 흥범도 장군의 흉상 철거를 주장한 인물이 관장인 탓이다. TV와 유튜브에는 광복절 행사가 생중계되고 있지만, 같은 날 각기 다른 행사를 내보내고 있다. 게다가 이상하게도 공영방송에 생중계되는 기념식에는 광복절을 대표하는 단체인 광복회가 없다. 혼란스러웠던 하루, 깨어있는 국민은 저마다 태극기를 집 앞에 걸고 순국선열들께 감사한 마음을 차분하고 조용하게 되새긴다. 오늘 하루의 마무리는 광복절 특선 영화가 아닌 어제 자정에 나온 기미가요가 다시 퍼지는 방송과 함께한다.

위 하루 일과는 일제강점기의 이야기가 아니다. 유감스럽게도 2024년 대한민국의 8월 15일 광복절이다. 흥범도 장군의 흉상 철거를 시도한 정부는 광복을 부정하며 식민지 근대화론을 주장하는 뉴라이트 계열의 김형석을 독립기념관장으로 임명했고, 이에 반발한 광복회는 광복절 경축식을 따로 열었다. 상식이

통하는 단체와 인사들은 둘 중 광복회 주최의 경축식에 참석했고 해방 이후 처음으로 두 개로 나뉜 경축식을 본 국민은 경악하고 분노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경축사에 대해서는 최악이었다는 혹평이 지면을 가득 채웠다.

아권에서는 “윤석열 정부인가, 총독부인가”라는 메시지로 비판했으나 정부는 아랑곳하지 않는다. 국민의 입을 막고 끌고 나가기를 일삼으며 국민이 죽는 일을 대수롭지 않게 여긴 정부가 이제는 역사를 입맛대로 바꾸려 하고 있다. 국민의 인내를 시험하고 있다.

굴종 외교에 대한 부끄러움은 왜 우리의 몫인가. 그간 비상식적인 행태를 수없이 일삼은 현 정부일지라도 정치적으로 그럴싸한 변명이나 저들이 취할 이익이라도 있었다. 그러나 지금의 대한민국에서 역사 왜곡은 어떤 방향으로도 이익이 될 수 없는 행위다. 게다가 보훈은 늘 보수가 쟁겨오던 가지 아닌가. 일관성마저 내팽개칠 정도로 역사를 왜곡해 얻을 수 있는 이점이 무엇일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아, 일본 입장이라면 이해할 수 있겠다.

반면, 같은 날 경험한 광주의 기념식을 떠올려본다. 광주의 광복절 공식 행사에서 광복회 교육 기부장께서는 기념사에서 가감 없이 분노를 표출했고 시민들은 뜨거운 박수로 화답했다. 또한 기념공연은 ‘레미제라블’의 OST로 알려진 ‘민중의 노래(Do you hear the people sing)’였다. 이 곡은 프랑스혁명을 배경으로 절대왕정에 분노한 프랑스

시민 계급의 외침을 표현한 노래다. 광주시가 계급사회로부터 자유를 외치는 투쟁의 노래를 광복절에 선곡한 이유가 무엇일지 곰곰이 생각해 본다.

최소한의 눈치라도 있다면 정부는 이제 정말 각성해야 할 것 같다. 국민이 왜 분노하고 있는지, 두 개로 나뉜 경축식과 지자체 기념식에 올려 퍼진 투쟁의 노래가 무얼 암시하는지 눈치채야 한다. 품격 있는 경교는 이제 슬슬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는 징조다.

그러나 고작 일주일이지난 지금, 벌써 이날의 만행이 잊혀지고 있다. 심판을 받아야 할 행위가 준 충격과는 다르게 너무나도 빨리 우리의 머릿속에서 24년 8월 15일이 지워지고 있다. 거듭된 실망으로 어떤 기대조차 하지 않게 돼버린 현 정부가 국민이 분노하는 역치까지 키워버렸다. 그리고 높아진 역치 탓에 실무율이 적용돼 자극에 무감각해지고 있다.

이스라엘 군은 빼앗긴 요새(히브리어: Masada)를 기억하며 지금도 훈련 구호로 ‘Masada never again!’을 외친다.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 부끄러운 2024년의 광복절을 기억해야 한다. 일본 교토부는 모든 여행사에 공문을 보내 12만 6000 조선인의 영혼이 잠들어있는 귀무덤(코무덤)을 한국 관광객의 관광코스 에 넣지 못하게 만들었다. 참배도 할 수 없게 문도 걸어 잠겨 있다. 빼앗긴 들은 아직 되찾지 못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는 말은 그저 그런 유행어 따위가 아니다. 세상만사를 관통하는 진리다.

社說

생산량 정확도 높여 쌀값 하락 막아야

농경원, 정확도 제고 방안 발표

지속되는 쌀값 하락의 원인으로 정부의 잘못된 통계가 지목되고 있는 가운데 농촌경제연구원이 쌀 생산량 조사의 정확도 제고 방안을 내놨다. 관심이 모아진다. 농업계는 매년 발표되는 정부의 쌀 생산량 통계에 대해 ‘정확성’을 의심하고 있다.

정부는 통계를 바탕으로 2023년산 초과 쌀 생산량을 9만여 톤으로 전망했다. 2022년 25만 톤에서 한 해만에 15만 톤이 줄어든 양이다. 하지만 정부 예측과 달리 재고 대란이 벌어졌다. 1년 새 생산량이 큰 폭으로 줄었다고 봤지만 산지 쌀값은 지난해 10월보다 가마당 4만 원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에 따르면 산지 쌀값은 지난 15일 기준 한 가마에 17만 7740 원으로, 지난해 10월 가마당 21만 7352원에 거래된 이후 10개월 연속 하락했다. 작년대비 올해 재고 쌀이 줄었는데 가격이 더 큰 폭으로 떨어지는 상황이라면 통계가 엉터리라는 게 농업계의 주장이다.

정부의 쌀 생산량 통계는 쌀 수급

안정 대책 수립을 위한 핵심 자료로 활용을 위해 1998년부터 통계청에서 조사를 수행해 매년 1월 공표한다. 통계의 신뢰가 추락하고 있지만 정작 통계청은 오는 2027년에 들어서야 표본 등의 개편을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농업계의 쌀 통계 반발 속에 농촌경제연구원이 쌀 생산량 조사의 정확도 제고 방안을 내놓은 것은 반길 일이다. 농경원은 22일 ‘쌀 생산량 조사 진단과 개선 과제’를 발표했다. 농경원은 쌀 생산량 조사 표본 설계 단계에서 지역별 비중 비율을 고려해 조사 필지 표본을 구축한다면 쌀 생산량 추정의 정확도를 보다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쌀값 하락세가 지속되면서 정부는 쌀 수확기 대책을 오는 9월 초 발표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미 농민들은 정부의 쌀값 정책에 분노하며 애써 기른 논을 갈아엎는 등 파문이 커지고 있다. 정부의 쌀값 대책은 늘 현장과 괴리가 컸다. 쌀 소비를 늘리지 못한다면 정확도가 높은 통계를 기반으로 쌀값 안정화를 위한 신속조치가 필요할 때다.

시민 위한 의미 있는 광주변화 기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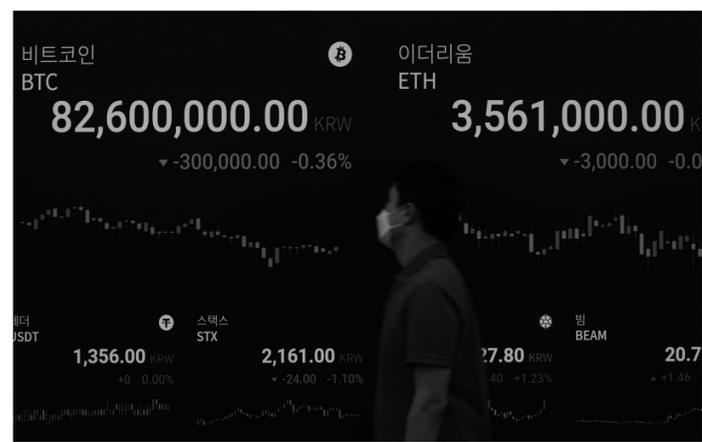
광주신세계 개발 계획안 제시

광주 광천터미널 부지에 특급호텔과 47층 규모의 복합시설을 신축하는 광주신세계의 개발 계획안이 제시됐다. 지난 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광주발 복합쇼핑몰 논란이 돌출된 지 2년여 만이다. 인구 144만 명의 광역시에 초대형 복합쇼핑몰은 커녕 창고형 할인점 하나도 없다는 것은 지금 광주를 보여주는 부끄러운 단면이다. 시대 변화에 맞는 의미 있는 광주의 변화를 기대한다.

광주신세계 측이 제출한 개발 계획안의 골자는 기존 신세계백화점을 유·스퀘어 문화관까지 확장하고, 종합버스터미널은 문화·상업·업무시설과 특급호텔을 갖춘 최고 47층 규모의 복합 시설로 개발해 지역의 대표 랜드마크로 조성한다는 것이다. 기존 터미널 또한 수직으로 복합화시켜 토지이용의 효율성과 이용객의 편의성을 극대화할 계획이다. 버스차고지로 이용되던 터미널 지상부에 대규모 녹지공간을 조성해 시민들에게 도심 속 휴식공간을 제공한다는 구상도 담겼다.

민선 8기 강기정 광주시장 취임 이후 광주는 ‘골렘도시’를 목표로 광천동 광주신세계 확장과 옛 전방·일신방직, 광주 어등산 등 3곳에서 사업 추진이 속도를 내고 있다. 시민들도 기대감 속에 복합쇼핑몰 조성사업에 대한 추진 상황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 당장 복합쇼핑몰은 지역 경제 활성화와 관광 산업 발전의 중요한 마중물이다. 광주의 관광산업을 발전시키고 낙후된 광주의 교통과 인프라를 개선시켜 광주의 이미지를 현대적이고 활기찬 도시로 바꿀 수 있다는 의미도 크다.

광주시는 시민의 편의성과 공공성, 투명성을 전제로 ‘광천터미널 복합화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교통문제도 고민해야 한다. 복합쇼핑몰이 들어설 경우 기존 교통시스템으로는 상습적인 교통정체를 피할 수 없다. 현재 검토 중인 간선급행버스와 도시철도 건설 대책을 면밀히 검토해 시민 중심의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광주신세계와 옛 일신방직, 어등산 등에 건설되는 복합쇼핑몰의 가치는 시민이 원하고 시민을 위한 건설임을 명심해야 한다.



사진으로 보는 세상

22일 오전 서울 강남구 업비트 고객센터 전광판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시세가 표시되고 있다. 비트코인은 반등하며 8300만원대 회복을 앞두고 있다. 7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록에서 위원 대다수가 9월 금리 인하를 지지한다는 내용이 담긴 영향이다. 사퇴가 예상되는 미국 대선 무소속 후보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RFK)가 트럼프를 지지할 것이라 전망도 투심을 자극했다. 뉴스

서석대



“밤이 깊어 은하수 서늘하고/청산을 벗어나니 모두가 잠 들었다/남문 밖 풀벌레 소리 맑고 길어/가을 바람에 젖은 이불 덮고 듣노라.” 중국 당나라 시절 3대 시인으로 일컫는 이상은은 가을을 누구보다 좋아했다고 한다. 다가오는 가을을 노래한 시 ‘처서’도 가을의 초입, 환연하게 달라진 계절의 변화를 서정적으로 표현한 그의 대표작 중 하나다. 한 낮 따가운 햇살에 짙은 녹음은 그대로지만, 여지없이 다가오는 가을을 맞아 가을 채비를 서둘러야

처서 즈음

입추가 가을의 문턱이라면, 처서(處暑)는 가을의 시작이다. ‘농가월령가’ 중 처서가 낀 ‘7월령’도 성큼 다가온 가을의 분위기가 멋지고 실감난다. ‘칠월이라 맹추더니 입추 처서 절기로다/화성은 서쪽으로 흐르고 미성은 중천이라/늦더위 있다 한들 계절을 속일 소나/빛소리도 가볍고 바람 끝도 다르다.’ 앞으로 더위가 있다 한들 가을을 시샘하는 잔서일 뿐, 서늘한 바람이 불어오고, 이슬이 내리고, 쓰르라미가 울어 대는 가을이 이미 시작됐다는 선인들의 여유로움이 싱겁다.

소설가 정병석은 처서부터 시작되는 가을을 ‘서글픈 계절’이라고 했다. 수필 ‘들국화’에서는 “가을빛과 가을 소리

치고 어느 하나 서글프고 애달프지 아니한 것이 없다.”고 했다. 흔히 ‘열매의 계절’이나 ‘수확의 계절’이나 하지만 가을은 역시 서글프고 애달픈 계절이라는 것이 작가의 설명이다. ‘깊은 밤 귀뚜라미 소리에 무엇인지조차 모르는 것이 불현듯 그리워지고, 가을 별이 포근히 내리비치는 신작로만 바라보아도, 정처 없는 먼 길을 떠나 보고 싶은 충동을 느끼게 되는 것도 역시 가을이 주는 외롭고 서글픈 때문’이라는 글귀에도 무한한 그의 가을 사랑이 담겨있다.

22일은 가을이 시작된다는 처서였다. 아직은 열대야에 삼복 더위가 기승이고 불볕이나 가마솥도 부족해 ‘역대급’이나 ‘살인적’ 같은 수식어가 일상이 된 날씨가지만, 그래도 선인들의 말처럼 ‘입추는 배신해도 처서는 배신하지 않을 것’이다. 정병석은 ‘들국화’에서 “봄은 사람의 기분을 방탕에 흐르게 하고, 여름은 사람의 활동을 게으르게 하고, 겨울은 사람의 마음을 음침하게 하건만, 가을만은 사람의 생각을 깨끗하게 한다.”고 했다. 이미 우리 곁에 다가온 가을, 오곡백과를 영글게 하는 마지막 햇볕과 아침 저녁 제법 선선해진 가을 바람을 맞으며 깨끗한 생각으로 가을을 준비할 때다. 이윤환 논설실장

全南日報	사장·발행·편집인 이재욱	논설실장 이용환	편집국장 박성원
대표전화	(062)527-0015	경영지원팀	(062)510-0421
기사제보	(062)510-0331	광고영업팀	(062)519-0710
편집부	(062)510-0412	문화체육부	(062)510-0351
취재1부	(062)510-0380	온라인뉴스부	(062)510-0461
취재2부	(062)510-0394	사진부	(062)510-0391
정치부	(062)510-0340		
www.jnilbo.com m.jnilbo.com			
구독료 월 1만5천원 1부 800원	1988년 4월25일 등록번호 광주가-2호 (일간) 우편번호 61474 광주광역시 동구 제봉로 137		
구독신청 (062)510-0471	광고문의 (062)512-0100		
FAX (062)510-0436	서울지사 (02)725-8890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독자 의견을 환영합니다 (e-메일) webmaster@jnilbo.com